Ⅰ 인구 구조와 노인 부양 여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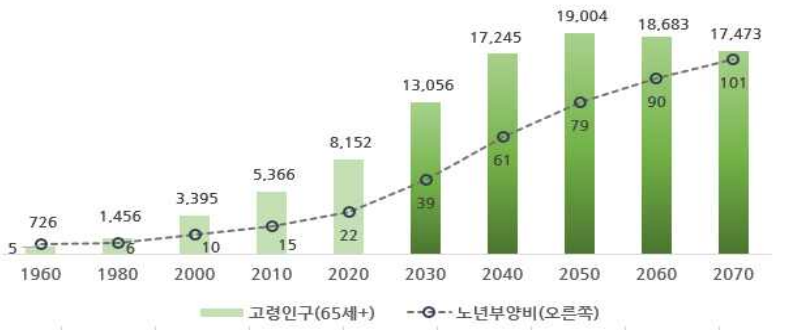
○ 인구·사회적 여건 변화를 볼 때 노인의 수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, 이들에 대한 부양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기 때문에 향후 노인들은 보다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될 것으로 보임

○ 베이비부머(1955~1963년 출생자)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,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갈수록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

-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진입과 함께 노인인구 수는 급속히 증가하여 2020년에는 8백만 명, 2050년에는 1천 9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
- 반면, 저출산에 따라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면서 노년부양비(노인인구/생산가능인구)가 빠르게 상승하여 2070년에는 노인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비슷해질 것으로 예상됨
- 이는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생산인구의 감소가 겹쳐지면서 사회적으로 노인인구를 부양할 여력이 크게 약화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음을 의미함

〈그림 Ⅰ-1〉 고령인구 및 노년부양비(1960~2070년)

(단위: 천 명, 명)



주: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백 명당임
자료: 통계청, 장래인구추계(2020~207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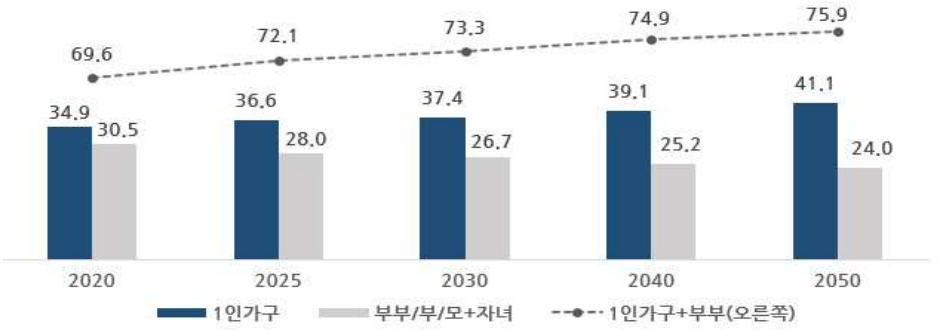
○ 핵가족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 상호간의 부양 여건이 악화되면서 노인 부부만 생활하거나 노인 1인이 생활해야 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

- 우리나라 노인 부부는 자녀와 별도로 생활하거나 이혼, 사별, 별거 등으로 홀로 생활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전체 고령자 가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전망임

•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노인들이 자녀나 배우자로부터 부양을 받기가 어려워져 스스로 일상생활 및 건강관리 등을 해결해야 함을 의미함

〈그림 Ⅰ-2〉 고령자 가구 유형(비중)

(단위: %)



자료: 통계청, 장래가구 추계(2020~205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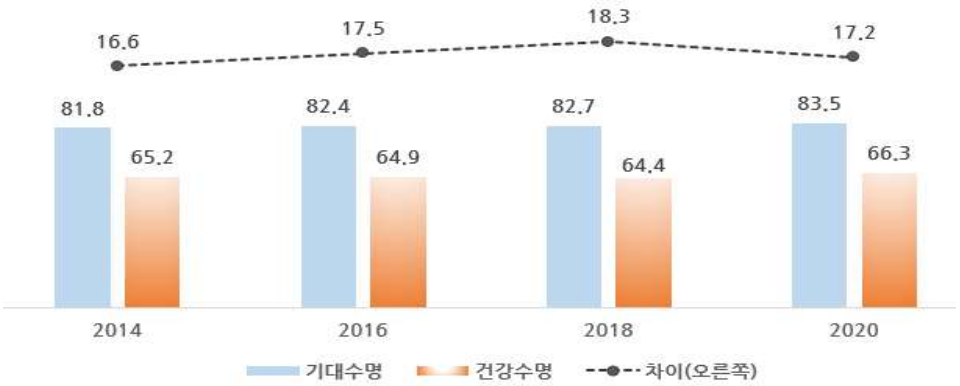
○ 기대 수명은 증가하는 반면, 건강 수명의 증가는 이에 미치지 못하여 향후 노인건강 관리와 요양 등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임

•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이미 80세를 넘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, 2020년에는 83.5세에 이르고 있어 초고령 인구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

• 반면, 건강 수명은 60대 중반에서 큰 변화가 없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생존하는 기간이 15년을 초과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노인들의 건강관리 또는 요양 등의 필요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음

〈그림 Ⅰ-3〉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

(단위: 세)



자료: 통계청, 국가승인통계, 제101035호